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19 “우리가 뛰다”

광주 광산구 주성남씨

# “3·1 마라톤서 100번째 풀코스, 벌써 설렙니다”

### 2008년 첫 완주...50번째 풀코스도 3·1절 마라톤서 이뤄 “운수업 하며 틈틈이 운동...내 자신과의 싸움 성취감 커”

“특별한 의미가 있는 3·1 마라톤에서 100번째 질주를 합니다.”  
주성남(45·광주 광산구)씨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3월1일을 기다리고 있다. 매년 잊지 않고 참가했던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이지만 이번에는 100번째 풀코스 질주라는데 더 의미가 있다.  
2008년 처음 땀은 인연이었다. 이 해 3·1 대회에서 처음 42.195km를 완주하며 마라톤의 매력에 푹 빠진 그는 50번째 풀코스

완주도 3·1 마라톤에서 이뤄졌다. 100번째 풀코스 무대도 3·1 마라톤으로 선택했다.  
주씨는 “처음 풀코스 완주를 한 대회이기도 하고 50회도 그렇고 100회도 3·1 마라톤에 맞춰서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그가 마라톤을 시작한 것은 2007년 11월. 우연히 참가했던 5km 건강 달리기에서 마라톤의 매력에 빠졌다.  
주씨는 “마라톤을 하기 전에는 조깅을 했는데 오래 하다 보니 컨디션이 왔다.

승부욕이 많아서 부상 위험도 있고, 다른 운동을 생각하게 됐다”며 “처음 마라톤을 시작할 때는 음주 등 생활 습관을 절제하지는 의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삶의 일부가 됐다”고 말했다.  
마라톤을 통해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는 성취감과 희열감에 달리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한다.  
주씨는 “처음 마라톤을 하면서 느낀 게 엄청난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었다. 결승선에 들어와서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성취감, 희열감을 느끼게 된다”고 마라톤의 묘미를 얘기했다.  
시간이 나는 대로 달리기 현장을 찾아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는 아내와 함께

대회 현장을 찾아 관광을 하는 등 마라톤을 통해 가족과의 정도 다지고 있다.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은 화물 운수업을 하느라 마음껏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상황이 허락하는 한 많은 질주를 하는 게 그의 바람이자 목표다.  
주씨는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달리고 싶다. 3·1 마라톤에서도 계속 달리겠다”며 “3·1 마라톤은 오랜 역사를 가진 믿음직한 대회다. 지역 마라톤러들이 좋은 코스에서 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나와 3·1 마라톤의 인연은 계속될 것이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챔피언스필드 국내 최초 불펜 개방

덕아웃·지붕 도색 등 리모델링



국내 최초의 불펜형 개방이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들어선다.

KIA 타이거즈 홈 구장인 챔피언스필드가 광주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해 새단장에 들어간다. 이번 시설 개선 작업은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고품질 Look & Fee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챔피언스 필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스키야닉스와 선수 공간의 심미적 요소와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선수들의 요구를 반영해 불펜과 덕아웃의 리모델링이 실시된다. 국내 최초의 개방형 불펜이 눈길을 끈다. 외야 필드 외야 양끝에 위치한 불펜은 폐쇄형에 곡선으로 휘어지면서 선수들이 경기장을 볼 수 없고, 불펜 피칭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등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불펜을 낮고 직선화 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특히 메이저리그 방식으로 펜스가 개방돼 불펜에 있는 선수들도 경기장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람객들에게도 특별한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덕아웃 난간도 선수들의 부상 예방 차원에서 기존 40cm에서 107cm로 높인다.

외벽과 지붕 도색 작업, 웰컴 게이트(Welcome Gate) 설치로 경기장 외관의 세련미와 정체성도 더한다.

외벽은 빨간색을 포인트 컬러로 적용해 도색작업을 하게 되며 지붕은 감색 바탕에 하얀색 레터마크(GWANGJU KIA CHAMPIONS FIELD)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2~5번 출입구와 진입 계단에 관람객 환영을 위해 웰컴 게이트를 설치, 선수 라인업 등 경기정보 송출과 응원 메시지 작성 등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카이 박스도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다. 내부 마감재와 조명을 교체해 아늑하고 편안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방침이다.  
테라스 좌석도 기아자동차 K3 시트를 그대로 사용해 편안함을 더한다. 경기 관람에 방해가 됐던 난간도 얇은 메탈 케이블 펜스로 교체 관람객들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4층 라운지 역시 챔피언스 필드의 정체성에 맞도록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고 벽면은 타이거즈 윌이라는 전시공간으로 구성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역전의 여왕’ 김세영, LPGA 첫 승도 역전승



역전승의 환희

8일(현지시간) 바하마 소재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의 퓨어실크-바하마 클래식에서 미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우승을 기록한 김세영(22)이 하늘을 향해 주먹을 쥐며 승리감을 표하고 있다. 김세영의 뒤로 이날 박인비와 함께 공동 선두로 라운드를 시작했다가 역전패한 유선영이 턱을 괴고 있다. /연합뉴스

### 바하마클래식 데뷔 2경기 만에...최나연 이어 한국 2주 연속 우승

‘역전의 여왕’ 김세영(22·미래에셋)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우승을 역전승으로 장식했다.

김세영은 9일(한국시간) 바하마의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골프장(파73, 6644야드)에서 열린 퓨어실크-바하마 LPGA 클래식 마지막 날 5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러 합계 14언더파 278타로 연장전에 들어갔다.

유선영(29·JDX), 에리아 쭈타누간(태국)과 18번홀(파5)에서 벌인 연장전에서 김세영은 버디를 낚아 시즌 두 번째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시즌 첫 번째 대회에서 컷 탈락, 상금을 받지 못했던 김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19만5000달러(약 2억1000만원)의 우승 상금을 받았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5승을

거둔 김세영은 지난해 12월 LPGA 투어 켈리파잉스쿨을 통해 올 시즌 미국 무대 출전권을 얻었다.

한국에서 거둔 5승을 모두 역전승으로 일구며 ‘역전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한국 선수들은 시즌 개막전인 코츠 챔피언십(최나연 우승)에 이어 시즌 두 번째 대회인 퓨어실크-바하마 클래식까지 제패하면서 올해도 세계 최강의 위용을 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세영은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너무 긴장해서 게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며 “뛰려고 할 말이 생각나지 않고 울고만 싶다”고 말했다.

한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는 공동 7위(11언더파 281타)로 마쳐 공동 5위(12언더파 280타)인 박인비보다 뒤졌지만 세계랭킹 1위는 지킬 수 있었다. /연합뉴스

### 박인비 LPGA 투어 ‘1000만달러 클럽’ 가입

박세리 이어 한국선수 2번째

‘골프 여왕’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상금 1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박인비는 9일(한국시간) 바하마의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에서 막을 내린 퓨어실크-바하마 LPGA 클래식을 공동 5위(12언더파 280타)로 마쳤다.

이 대회 전까지 통산 997만1418달러의 상금을 쌓은 박인비는 바하마 클래식에서 4만9178달러를 더해 통산 상금 1002만596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선수가 LPGA 투어에서 통산 상금 10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박세리(1252만7577달러)에 이어 박인비가 두 번째다. /연합뉴스

박세리는 통산 상금 7위에 올라 있으며, 전체 1위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2257만3192달러)이다.

지난주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에게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를 내준 박인비는 이번 주에 정상에 탈환하지는 못했다.

바하마 클래식에서 박인비가 4위 이내에 들면 리디아 고의 성적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었지만, 공동 5위로 마치면서 이번 주 랭킹에서도 리디아 고가 정상을 지키게 됐다.

지난 2일자 랭킹에서 남녀 통틀어 역대 최연소(17세9개월7일)로 세계 1위에 오른 골퍼로 기록된 리디아 고는 바하마 클래식에서 공동 7위에 올랐다. /연합뉴스